

좋은 놈, 나쁜 놈, 한심한 놈

글 · 어수갑 eohsg@kdemo.or.kr



KBS-TV 시청료 거부운동 소식지

KBS TV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일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또 다시 이런 ‘불온한’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사실이다. ‘국민의 방송’이라는 한국방송 KBS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왜 과거의 기억이 생뚱맞게 떠올려져야만 하는 것일까.

공영방송인 KBS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공익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전달하는 관제언론으로 전락했다. 언론통폐합이라는 신군부의 쿠데타적 탄압에 맞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갔다. 공익은 내팽개친 채 정권의 간과 쓸개에 붙어 이른바 ‘땡전뉴스’를 만드는 등 전두환 군부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초·중반에 농민들부터 시작하여 재야와 종교단체로 확산되어오던 TV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은 1986년 1월 20일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 김지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하 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같은 해 2월 14일 운동본부는 ‘KBS-TV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5만부와 홍보 유인물 1만부를 제작·배포하면서, ‘KBS-TV가 1985년의 2·12 국회의원 선거 보도의 경우에서처럼 여당인 민정당의 홍보·선전매체로 전락하여 대중의 정치의식 잠재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는 매우 높았다. 3월 25일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에서 김대중, 김영삼 공동의장 명의로 ‘회직자(會職者)에게 드리는 서신’을 발송했다. 거기서 그들은 ‘정권의 여론조작에



KBS-TV시청료거부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생산한 스티커

이용당하여 언론의 본질을 망각한 채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는 KBS, MBC TV를 규탄하며, TV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신과 전화를 통한 캠페인의 전개’를 당부했다. 4월 8일에는 당시 야당인 신민당 정무회의에서 ‘KBS 뉴스 안 보기’와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부는 시청료 거부운동을 정권 안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까지 인식하면서 ‘반체제적 공세’라고 규정하는 한편, 운동의 범국민적 지지를 의식해 KBS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고,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김수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선언문

환 추기경의 공개적 지지 발언 이후 이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5월 15일 김 추기경은 기독교방송과의 대담에서 '언론의 자유를 떼어놓고는 신앙의 자유를 비롯해 모든 다른 자유도 완전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보도태도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1일에는 운동본부 임원단을 중심으로 가두 홍보 캠페인까지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 9월 29일 '시청료 거부 및 언론자유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이 결의되었다. 여기에는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KBS 시청료폐지운동 여성단체연합 외에 신민당과 민

추협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KBS는 공영방송임을 자처하며, 국민의 시청료와 방대한 독점적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 왜곡, 편향보도를 일삼는 등 공정한 보도와 건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회귀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청료는 공정보도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다는 국민과의 계약이며 의무로서 KBS가 이를 지키지 아닐 때 시청료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당한 국민적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시민불복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 운동은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고 이듬해의 6월민주항쟁 기반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KBS TV 시청료납부 거부운동과 관련하여 사료관은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 선언문을 비롯한 사료 100여 건을 소장하고 있다.

KBS-TV시청료 거부 범국민운동본부, KBS-TV 시청료 거부 범시민운동여성연합 등 다양한 단체에서 생산한 박물사료인 스티커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의 KBS-TV 시청료 거부운동 소식지 제1호, 제2호와 같은 정간물, 자료집, 신문스크랩 모음, 사례모음집, 사진사료 등 비교적 다양한 사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민권운동으로 잘 알려진 시민불복종운동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대적 인권 후진국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왔다. 위에 언급한 대로 2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활화산처럼 일어났던 KBS TV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은 전형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기록된다. 이후 2000년 1월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412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주도한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 낙선운동이나 지난해 광우병 정국 당시의 촛불문화제 역시 이 범주의 시민운동이다.



1986년 KBS 시청료 거부운동 주민교회 여성인들의 거리 캠페인

이는 현재의 실정법이나 질서보다는 자연법으로서의 정의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이를 수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는데, 정권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출행위가 다소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시민불복종운동을 사갈시하여 불법화하거나 진압하기 보다는 애초에 이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KBS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에 미운털 박힌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련의 행태

는 아무래도 귀추가 걱정된다. 혹시 국민들의 매를 버는 일은 아닐까.

굳이 '놈·놈·놈' 버전으로 말하자면, 땡전뉴스나 틀어대던 시절의 KBS는 '나쁜 놈'이고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정권 시기의 KBS는 분명 '좋은 놈'이었을 테다. 그렇다면 지금의 KBS는 어떤 놈?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